강원영상위원회
GANGWON FILM COMMISSION
www.gwfilm.kr

보도자료

배포: 2019년 6월 7일(금) | 보도 :2019년 6월 7~11일
본문 2쪽 | 담당 : 영상지원팀 사원 채진희
전화: 033-240-1378 팩스: 033-240-1374 이메일: pdco12@naver.com

한국영화계의 거장 '정지영' 감독 차기작 영화<블랙머니> 도내 촬영으로 기대 모아

지난 3일~5일 춘천 배후령 옛길 일원에서 촬영 무사히 마쳐
강원영상위원회, 커피차 지원 및 촬영현장 격려 방문으로 지원 '든든'

□ 영화<옥자>, <사바하>, <스윙키즈> 등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촬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, 한국영화계의 거장 정지영 감독의 영화<블랙머니>가 도내에서 주요 장면 촬영을 진행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□ 강원영상위원회(위원장 방은진)는 영화<블랙머니>의 강원도 촬영을 유치하고 행정 지원 중에 있으며, 영화 제작진 팀이 지난 3일부터 5일 사흘간 춘천 배후령 옛길 일원에서 교통통제를 진행하고 영화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고 전했다.

□ 강원영상위원회는 현재 올해 영화<블랙머니>를 포함한 24편의 작품에 대하여 도내 촬영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섰으며, 앞으로도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촬영 팀에게 가능한 범위 내 적극 지원할 거라 밝혔다.

□ 배우 조진웅·이하늬 주연의 영화<블랙머니>는 저축은행 사건을 추적하는 검찰 내부의 갈등을 그린 범죄 드라마 장르로, 조진웅은 검사를 이하늬는 변호사 역을 맡았다.

□ 이 작품은 <거리의 악사>, <남부군>, <하얀전쟁>, <부러진 화살>, <남영동 1985>를 연출하고 <천안함 프로젝트>, <직지코드>, <국정교과서516일:끝나지 않은 역사전쟁>을 제작한 정지영 감독의 차기작이다.

□ 지난 4일, 강원영상위원회는 제작진을 위한 커피차를 지원하고 김성태 사무국장이 촬영 현장을 격려 방문한 가운데, 이 자리에서 정지영 감독은 "쉽지 않은 도로통제 촬영을 위해 춘천시민 및 유관기관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" 고 전했다.

□ 한편, 강원영상위원회는 2017년 3월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 영화, 드라마, 광고 등 총 100여(2017년 42작품, 2018년 58작품) 작품의 영상물을 유치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영상위원회 영상산업팀 채진희 사원(☎033)240-137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